

종려 / 수난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PALM/PASSION SUNDAY

주후 2023년 4월 2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141 장 “호산나 호산나” (통일 132)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29 번 종려주일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권영수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출애굽기(Exodus) 20:1-17	금종각 집사
찬 양 Anthem	“나의 구세주”	찬양대
설 교 Sermon	“탐내지 말라” (You Shall Not Covet)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주의 만찬 Communion	(집례: 김일선 목사)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288 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통일 204)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겼고,

현실의 문제 앞에 크게 낙심하며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여전히 머뭇거리면서도,

진정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더 이상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일 2:15)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개역개정, **출 20:17**)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house.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wife, or his manservant or maidservant, his ox or donkey, or anything that belongs to your neighbor.” (NIV **Exodus 20:17**)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4/2 (주일)	4/3 (월)	4/4 (화)	4/5 (수)	4/6 (목)	4/7 (금)	4/8 (토)
	레5	레6	레7	레8	레9	레10	레11,12
본문	시3,4	시5,6	시7,8	시9	시10	시11,12	시13,14
	잠20	잠21	잠22	잠23	잠24	잠25	잠26
	골3	골4	살전1	살전2	살전3	살전4	살전5

고/난/주/간 특/새/ 성/금/요/일 특/별/예/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4/2월-4/7금 매일 오전6:30)	주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성금요일 특별예배 (4/7금 오후7:30)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이사야 52:13-53:12)

지난 주일(3/26) 말씀 –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32)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애굽기 20:1-17)

십계명의 아홉번째 계명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원래 재판의 과정에서 위증을 방지하기 위한 계명이었습니다. 오늘날과는 달리 고대 성경시대의 재판은 증인의 진술에 상당부분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증인이 어떻게 진술하느냐? 에 따라,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살기도 하고, 또한 죽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단지) “말을 조심하라”든지, (또는) “언어를 순화하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말 한 마디로 한 사람이 좌우될 만큼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1)첫째, 우리는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2)둘째,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think)하고 말해야” 하며, 3)셋째, 우리는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일찍이 바울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엡4:25)고 권면했던 것처럼, 이제 거짓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정죄함을 버리고, 진정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낙심하고 주저앉았던 영혼들에게 격려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도, 참된 진리의 전달자가 되며, 쉽게 내뱉는 허망한 말이 난무하는 세상에서도 진실한 말을 빚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 진리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좇아 항상 진실하고, 거짓 없는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